

노동감독관 실습교육 축소는 사실과 다르며,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과 독립성도 철저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
< I.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>

1. 관련 기사

□ 9.7.(월) 한국경제, 수사 ‘초짜’ 공무원이 지방 노동사건 전담

-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분을 겸하는 지자체 4급 부서장이 지방 노동 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어,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고 '노동 사법경찰관'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
-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노동사건과 수사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사건을 맡게 되어 감독 체계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-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당한 감독·수사 개입을 금지하고, 지방노동감독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다층적으로 두고 있음
 - 시·도지사와 상급자는 정당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지방감독관에게 불리한 처우나 차별 등 불리한 처우와 부당한 지시·간섭을 할 수 없음(법 제29조)
 - 또한, 노동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위법·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정명령, 취소·정지, 직무이행명령 및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(법 제30조)
- 수사의 전문성·공정성을 위해 중앙노동감독관 파견, 지방노동관서 지원, 감사의 지도조언 활용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

- (중앙노동감독관 파견) 경험이 풍부한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(법 제33조) 하여 입건부터 송치까지 수사 전 과정을 파견감독관이 지도·점검·자문 역할
 - * 제주도 1명 파견(9.1.), 하반기 지방정부별 수요·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
 - (지방노동관서 지원) 지방노동관서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방정부 질의에 5일 이내 회신하고, 주요 수사는 노동부장관의 의견 제시권 적극 활용할 예정(법 제24조제2항)
 - (검사 협력)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지도·조언을 활용하고, 수사한 모든 사건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
 - (이첩) 고난이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을 신청하여, 중대성과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이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
- 아울러,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감독의 사후조치에 수반되는 수사로 한정되며, 실제 발생 건수도 제한적임
- 진정·고소 등 신고사건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이 노동부 감독관이 담당하며, 지방정부의 노동감독은 예방 중심으로 운영
- 제도 시행 초기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, 지방노동감독관을 전폭 지원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
- 특히 지방노동감독관의 실무역량 확보를 위한 집체교육(8주), 매뉴얼 보급, 지방노동관서 멘토링 등 충분한 지원을 할 예정이며, 중앙-지방이 참여하는 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준비상황과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겠음

< Ⅱ.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관련 >

1. 관련 기사

□ 9.7.(월) 한국경제, 「192시간→12시간 신규 실습교육 축소」 기사 관련

- 신규 노동감독관을 급격히 늘리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신규 감독관 실습 교육 시간은 3년 만에 90%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신규 감독관 교육 시간은 2022년 총 340시간에서 올해 123시간으로 217시간(63.8%) 줄었다. 특히, 현장 업무에 직접 연결되는 실습·사례 교육시간은 같은 기간 19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무려 93.8% 감소했다.

2. 설명 내용

□ 올해 신규감독관 실습교육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 오히려 8주 256시간 수사학교로 대폭 확대되었음

* 기사에 인용된 '25년 연구보고서의 '이론 위주·실습 부족' 지적은 개편 이전 교육에 대한 것으로, 올해 실습 중심 개편 사항은 반영되지 않음

○ 고용노동부는 '26년부터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을 기본학교(4주, 이론)와 수사학교(8주, 실습)를 결합한 12주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임

－ 올해 신규 교육은 총 379시간이고, 이 중 268시간이 실습임(수사학교)

－ 기사에 인용된 '123시간·12시간'은 12주 과정 중 이론과정 4주만 집계한 수치임

□ 신설된 수사학교는 신규자가 모의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실습과정으로, 현직 베테랑 감독관이 직접 개발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됨

○ (과정 신설) 올해 초 베테랑 감독관 7명으로 근로감독역량강화TF를 구성하고, 신고사건 316만 건과 신규자 처리 송치서류 150건을 분석하여 모의사건 실습과정을 개발·운영('26.6월~)

○ (운영 방식) 교육생은 모의사건 34건을 '접수-조사-조치-종결'까지 반복 처리하며, 과정을 개발한 감독관이 직접 강의하고 개별 피드백을 실시

- 업무시스템(노사누리)과 실무 서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조사부터 조사·보고서·송치서 작성까지 실제 업무절차와 동일하게 반복 훈련
- TF 감독관 7명이 8주간 전 과목을 직접 강의하고, 분반별 담임제로 매주 수행평가와 1:1 피드백 실시

○ (현장 멘토링) 신규자 배치 후에도 소속 관서에서 12주간 멘토링으로 현장 적응을 지원하며, 실습 중심 교육은 재직자·관리자로도 확대 중

□ 내년에는 (가칭)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하여, 중앙·지방 노동감독관 교육을 전담할 계획임

○ '27년 정기직제로 수사 실무교육 전담 교육기관을 신설(24명 규모)하기로 하였으며, 신규자뿐만 아니라 재직자·관리자·지방감독관까지 실습 중심 수사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	책임자	과 장	구현경 (044-202-7821)
		담당자	서기관	이철호 (044-202-7829)
	근로감독기획과		사무관	류한석 (044-202-7826)
			사무관	오정희 (044-202-7824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승훈 (044-202-8914)